



보도자료

배포일시

2020. 4. 24.(금)

* 4.24 오후 12시부터 보도가능

KIND-KEA 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MOU 체결 - 신재생에너지 분야 우리 기업 해외진출 지원 협력 강화

-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(KIND, 사장 허경구)는 한국에너지공단(KEA, 이사장 김창섭)과 4월 24일 에너지효율화·기후변화대응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개발 및 투자 지원을 통한 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사업협력 협약(MOU)을 체결했다.
- KIND는 지난 2018년 6월에 출범,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사업발굴부터 사업개발, 금융조달, 건설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를 지원하고 있으며, 이미 칠레에서 태양광발전사업 2건에 대한 투자결정을 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도 활발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.
- KEA는 ‘신재생 해외타당성조사 지원사업’ 운영과 에너지·기후변화 관련 국제협력을 통해 구축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, 해외사업 지원을 확대하여 KEA가 에너지 분야의 해외진출 플랫폼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.
- MOU 체결을 계기로 두 기관은 KEA가 가진 해외네트워크 및 사업발굴 기능과 KIND의 사업개발 역량 및 직접투자 기능을 연계하여 해외사업을 공동으로 개발 및 추진하고, 해외사업 정보 및 기술, 인력 교류에 있어서도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.
- 허경구 KIND 사장은 “기후변화대응이 중시되고 있는 흐름에 따라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, KIND도 이 분야 투자개발형 사업을 적극 지원해오고 있다”면서, “본 MOU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서로 연계하여 기업들의 해외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플랜트사업실 이영목(☎ 02-6746-738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